

불가 경전의 구결 전승과 유가 구결의 분화에 관한 고찰*

신 영 주**

< 目 次 >

I. 머리말	III. 유가의 구결 기호 분화 시기에 관한 추론
II. 불가 경전 구결의 변천과 전승 양상	IV. 맺음말

< 국문 초록 >

이 연구는 우리 선인들이 한문 학습과 연구를 위해 오래전부터 사용해왔고 지금도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차자표기 구결에 대해 살펴본 것이다. 고려 초에 각필로 점과 선을 그어서 완성한 구결과 한자의 점획을 생략하여 墨筆로 표기한 구결이 있는데, 상호 연관성과 성립 시기에 대해 알아보았다. 또 자토 구결의 기능이 석독을 위한 것에서 음독을 위한 것으로 변화된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초조본 『유가사지론』과 『舊譯仁王經』과 재조본 『瑜伽師地論』 등의 사례를 견주어보았다.

동시에 지금까지 불가에서 경전 연구를 위해 구결을 활용하여 경문을 분석하고 이를 구결을 통해 후대에 전승하여 학술 전통의 계승을 이루어낸 것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울러 유가에 기반을 둔 학술 지식인들이 유가와 불가가 대립하는 시대 상황 속에서 불가와 구별되는 새로운 조합의 구결을 활용하게 된 현

* 이 논문은 2018년도 성신여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syj@sungshin.ac.kr

상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 구결 분화에 차별화 전략이 내재했을 가능성도 함께 알아보았다.

【주제어】 차자표기, 구결, 유가의 구결, 불가의 구결, 구결 전승

I. 머리말

우리 선인들은 한문 학습과 연구를 위해 오래전부터 구결이라는 차자 표기를 사용했다. 구결은 한문을 우리말 음훈과 통사구조에 맞추어 읽고 해석할 방법을 지시하는 학술 도구로써 지금도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

이는 보기 드물게 정교한 체계를 갖춘 차자표기인 까닭에 국제적으로도 주목받고 있어, 최근 수십 년간 국내외 연구자들에 의해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졌고 그만큼 많은 성과도 있었다. 하지만 극히 난해한 연구 영역인 까닭에 밝혀야 할 부분이 여전히 산적한 것이 사실이다. 구결 성립의 시기와 그 주체를 특정하지 못했고, 그 쓰임새와 발전 과정도 아직 시원하게 밝혀내지 못했다.

문헌 자료가 희소해서 사례 분석에 한계가 있고, 표기 시점의 기년 추정도 여의치 않아 변천 과정을 사적으로 고찰하기도 어렵다. 무엇보다 14세기 이전에 생산한 구결은 이두, 향찰과 함께 중세 이전의 한국어 정보를 제공해주는 거의 유일한 문자 유산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를 해독하는 일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훈민정음 창제 이전에 사용한 우리言語의 양태를 분석한 학문적 축적이 아직 충분하지 못한 까닭에, 해당 시기 언어환경 속에서 생산된 구결의 의미와 쓰임새를 알아내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전해지는 자료로 볼 때, 고려 초기에 각필로 점과 선을 그어서 완성한 點吐를 활용했음을 알 수 있다. 한문을 풀이해서 읽는 釋讀에 맞추어 표기한 구결들이다. 點吐는 10세기에서 13세기까지 생산한 자료에서 주로 발견

된다. 그리고 13세기 이후로는 한자의 점획을 생략하여 墨筆로 표기한 字吐가 발견된다. 자토 역시 초반에는 한문 텍스트를 읽고 해석하는 데 필요한 음훈 정보와 통사구조 정보를 지시하는 데에 최적화된 것을 사용하였다. 점토 구결과 그 기호 형식은 완전히 다른 것이지만, 통사구조를 분석하여 지시해주는 기능과 원리는 서로 유사하다. 이 구결 기호를 자구의 안팎과 상하좌우에 빼곡하게 표기해서 독자에게 수많은 정보를 제시해주었다. 여기에서 점토와 자토의 성립 시기를 밝히는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남는다.

석독에 맞추어 표기한 이 시기의 자토는 音讀에 맞추어 표기한 후대의 자토와는 쓰임이 크게 달랐다. 『舊譯仁王經』과 『瑜伽師地論』(1246년 간행 再雕大藏經)에 석독에 맞추어 표기한 字吐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시대가 지나면서 점차 복잡한 석독 구결에서 벗어나 간략한 음독 구결을 선호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13세기 후반 이후로 석독 구결은 일부 기능만을 남겨둔 채 거의 사라졌다. 오직 한문의 음독을 돕는 구결이 사용되었을 뿐이다. 이는 문헌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¹⁾ 아마도 한문학 수준의 향상과 깊이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두 가지 중에서 무엇이 먼저 성립됐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뜻풀이를 돕는 석독 구결이 먼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짐작될 뿐이다. 그러나 적어도 음독 구결이 석독 구결을 극복하면서 출현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두 가지는 오랫동안 함께 병립했을 것으로 짐작해본다. 석독 구결은 새김으로 풀이하여 읽는 것을 돕는 기능을 하고 음독 구결은 독음으로 낭송하여 읽는 것을 돕는 기능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음독 구결로 단일화되었을 것이다. 지식인 사회의 한문학 수준이 높아져서 음독 구결만으로도 석독 구결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게 되어 자연스럽게 석독 구결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후 2백 년가량이 지난 15세기 후반에 이르면 館閣에서 각종 불가 경전을 언문으로 해석하고 구결을 달아서 출간하였다. 그리고 16세기 후반

1) 남권희, 「高麗末에서 朝鮮中期까지의 口訣資料에 관한 書誌學的 研究」,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한국도서관정보학회, 1998.

에 이르면 유가 경전의 구결을 확정하고 諺解한 서적을 출간하기 시작했다. 이 무렵에 유가 경전에 표기된 구결은 이후 그대로 계승되어 전해졌다. 경전뿐 아니라 윤근수(1537~1616)와 최립(1539~1612)의 경우처럼 한 유와 유중원 등 문장가의 작품을 두고서 진지한 구결 담론을 벌이기도 했는데, 모두 유가 경전에 표기된 구결의 방식을 따르고 있다.

주목할 점은 불가 경전에는 고려에서 조선 후기까지도 크게 다르지 않은 구결 기호를 사용하고 석독 구결 기호도 보조적으로 활용한 것에 비해, 언젠가부터 유가 경전에는 불가의 구결과는 다른 형태의 구결 기호를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붓으로 표기한 구결 기호를 비교해보면 그 차이를 느낄 수 있다. 16세기 이후 자료에서 이런 현상이 어렵지 않게 확인된다. 아직 해당하는 기록이 발견되지 않아 이전 상황을 알기는 어렵지만, 이전에도 이런 형태의 유가 경전 구결이 없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적어도 16세기 이전부터 불가 구결과는 구별되는 유가의 구결 기호가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른 모양의 구결 기호를 사용한 것이 차별화의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유가 구결을 차별화하여 결국 불가 구결과 다른 새로운 갈래를 형성한 것일 수 있다는 가정을 해볼 수 있다. 당시에 구결을 사용하는 주체가 일정한 의도를 반영해서 변화를 끌어낸 것이라면, 이를 차별화 전략으로 일컬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차별화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변화가 시작된 시기와 그 양상을 추적하는 것도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몇 가지 문헌 자료를 분석해서 불가 구결 기호의 변천 전승과 유가 구결의 분화 양상을 추적해보고자 한다. 이로써 구결의 사적 전개 과정을 조금이나마 밝혀낼 수 있기를 바란다.

II. 불가 경전 구결의 변천과 전승 양상

구결의 초기 모습이 어떠했을지 현재로서는 짐작하기 쉽지 않다. 다만 6세기 후반 무렵에 제작된 「戊戌塢作碑」²⁾와 「壬申誓記石」 등에서 사용한 바 있는 한국어식 한문 표기 방식에서 출발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알려져 있다. 이것이 점차 모양새를 갖추어 이두로 발전하였다고 본다. 구결과 향찰도 역시 같은 원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을 것이다.

초기 향가로 꼽히는 「서동요」도 이 시기에 해당하는 진평왕 재위 연간(579~632) 초에 백제 무왕이 창작한 노래를 후일에 향찰로 기록한 것이다. 문헌에 따르면 신라 설총(655~?)이 九經을 方言으로 읽어서 후생을 訓導하였다.³⁾ 그리고 후대에 明經에 종사하는 학자들이 이를 존송하여 끊임 없이 傳受했다고 한다.⁴⁾ 설총이 활용한 方言도, 「서동요」 채록에 활용한 향찰과 유사한 이두의 초기 형태였을 것으로 본다.

6세기 후반에서 7세기에 이르는 사이에 신라에서는 유가 경전뿐 아니라 불가 경전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따라서 불가 경전 역시 같은 방언의 형식으로 풀이되었을 개연성이 크다. 아마도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방언의 문법에 맞춘 경전 학습 도구가 필요해졌고, 이것이 차츰 모양새를 갖추어 구결로 발전했을 것이다. 다만 아쉽게도 이를 증빙할 문헌 자료는 아직 발견되지 않는다.

현재 실물을 통해 확인되는 구결 중에서 이른 시기의 것은 11세기에 간행한 초초대장경에 각필로 표기한 점토 구결이다. 설총의 시기와는 상당한 시간 격차가 존재한다. 둘 사이를 이어줄 논리적 징검다리도 찾기 어렵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그 발전 과정을 설명하기 어렵다. 하지만 후대의 각필

2) 저수지 독을 쌓고서 공사한 내용을 기록한 「戊戌塢作碑」가 최근에 관독되었는데, 「임신 서기석」 형식의 이두가 섞인 글로 무술년(578)에 만들어졌다고 추정하였다.

3) 『三國史記』卷46 「薛聰」, “聰性明銳, 生知道待術. 以方言讀九經, 訓導後生, 至今學者宗之.”

4) 『三國遺事』卷四 「義解元曉不羈」, “聰生而睿敏, 博通經史, 新羅十賢中一也. 以方音通會華夷方俗物名, 訓解六經文學, 至今海東業明經者, 傳受不絕.”

구결이 이미 정연한 어법 질서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그 이전에 이미 오랜 세월의 시행착오와 개선 과정을 거쳤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초기 구결은 거의 불가 경전에 남은 것이 전해질 뿐이다. 고려 이전에 유가 경전에 표기된 구결도 없지 않았을 것이나, 현재로서는 확인할 자료가 있지 않다. 그런데 불가 경전에 남아 있는 초기 구결도 이미 상당히 체계를 갖추고 있고, 각 텍스트에 최적화된 것들이다. 구결 활용이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

현재 발견되는 11세기 이후의 구결이 경전을 학습하는 많은 사용자에게 의해 오랜 시행착오와 합의 조정을 거쳐 완성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면, 구결의 초기 형태는 이로부터 몇 세기 이전에 갖추어졌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 구결의 역사가 현재 전해지는 구결의 작성 기년보다 훨씬 이전으로 소급될 수 있다는 말이다.

구결은 이두에서 파생되어 나온 것으로 본다. 그런데 點吐와 字吐의 성립 시기를 추정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자토가 만들어진 뒤에 이를 토대로 점토가 만들어졌다고 보는 편이 자연스럽지 않을까 한다. 아마도 경문의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토의 기능을 점과 선으로 부호화해서 각필로 표기하게 되었을 것이다.

현재 전하는 구결만으로 보면 點吐가 더 이른 시기에 발견된다. 字吐는 이후 13세기에 간행한 『瑜伽師地論』(1246년 간행, 재조대장경)과 『舊譯仁王經』 등에서 확인되기 시작한다. 추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자료 빈곤으로 인한 오류일 가능성이 있다.

성립 시기의 선후 문제는 판정하기 어려우나, 두 가지가 매우 유사한 원리로 작동하였다는 사실은 기존 연구 성과에서 확인된다. 이는 점토와 자토를 긴밀하게 연계해서 사용했음을 말해준다. 서로 연계하여 함께 사용하였다면 서로 영향을 끼치며 함께 발전하였을 것이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점토가 먼저 중심에서 멀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 발견되는 가장 빠른 시기의 구결은 각필로 초조대장경 인쇄본에 표기한 점토 구결이다. 국립한글박물관이 소장한 『유가사지론』 권66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⁵⁾ 성암고서박물관이 소장한 『(주본)화엄경』 권2와 『유가사지론』 권8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⁶⁾ 모두 11세기에 간행한 초조대 장경에 표기한 구결이다.

경문 글자의 안팎과 상하좌우에 위치를 구분하여 각필로 점과 선을 그어서 특정한 뜻을 지시하였다. 이 점과 선을 근거로 해서 경문을 판독하고 현대어로 풀이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승재와 장경준 등이 제시한 '구결 위치 구분 모형' 및 '단점과 사선의 점도'를 통해 이 점토가 일정한 어법 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점토 구결은 이후 13세기 후반까지 불가 경전에 꾸준히 사용되었다. 13세기 이후로도 사용된 사례가 보고되기는 하지만, 비중 있게 사용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유가 경전에도 점토 구결이 일부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토 구결의 경우 표기 기년이 가장 앞 시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국대 박물관 소장 『구역인왕경』(낙장 5장)과 국립한글박물관 소장 재조본 『유가사지론』을 들 수 있다. 이 두 가지 문헌에는 아래와 같은 석독 구결이 달려 있다.

유가사지론							
	호리인	달하져	달하져할지다	하리잇	리다호리고	하져하며	홀대

5) 국립한글박물관, 『초조대장경 유가사지론 권66』(23장 8~11행), pp.134-135.에서 전재. 국립한글박물관 「각필구결 초조대장경 <유가사지론> 권66 자료집」, 2018.
 6) 장경준, 『『瑜伽師地論』點土口訣의 몇 가지 특징』, 『구결연구』 38, 구결학회, 2017, p.100.
 7) 장경준, 「국립한글박물관 소장 『유가사지론』 권66의 點土 개관」, 『초조대장경 유가사지론 권66』, 국립한글박물관, 2019, pp.95-96.

구역 인왕경							
	호시며	여호리마는	의며	하나기시다	이저하신	이저	여호리이하 사온대

이는 후대의 음독 구결과 다른 것이다. 사용하는 기호 자체는 일부를 제외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으나 석독에 적합한 구결과 음독에 적합한 구결이 다르기에, 주로 사용하는 구결 기호에 서로 차이가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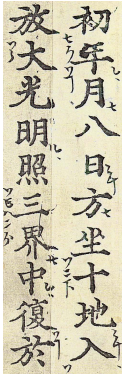
후대에 사용된 음독 구결 중에 『서장』의 구결을 예로 들면 아래와 같다.

서장 안심선원							
	하리라	라하시니	흔들로	하소라	라하시니	하사대	하얏나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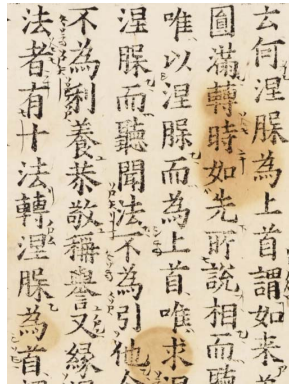
서장 묘희암							
	언마는	하논든	케하나다	사라라하시니	하논드로	(故)로	어니잇너

구결 기호만 본다면 앞의 석독 구결 기호와 서로 유사한 부분이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석독 구결의 경우는 우리말로 풀이한 번역어의 어간과 어미까지 구결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를 표현하기 위한 다양한 기호를 복잡하게 사용한다는 특성이 있다. 이로 인해 음독 구결과 다른 기호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래에 다시 동국대박물관 소장 『구역인왕경』과 국립한글박물관 소장 재조본 『유가사지론』에 표기된 구결의 일부를 예로 든다.



구역인왕경



재조본 유가사지론의

13세기 무렵에 불가 경전에 표기된 자토 구결의 모습을 보여준다. 경문의 해독을 돕기 위해 글자 좌우에 구결 기호를 붙여놓았다. 이는 이후에 본격적으로 활용되었던 음독 구결과는 구별된다. 음독 구결의 경우는 경문을 읽어 내려가는 순서대로, 곧 한문의 본래 문법과 어순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구결을 달아놓는다. 이때 굳이 앞으로 되돌아가서 거슬러 읽어야 할 필요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위의 경우는 완전하게 우리말로 풀이했을 때의 우리말 어순에 맞추어 구결을 달아놓았다. 곧 우리말로 풀이하여 읽은 순서에 맞추어 구결을 달아놓았기에 구결을 적용하는 순서가 앞뒤를 오갈 수밖에 없다.

위 경문과 구결을 읽어낸 판독문 일부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8) 국립한글박물관, 재조본 유가사지론(한구(구)3378). [https://www.hangeul.go.kr/museumCollection/museumCollectionView.do?curr_menu_cd=0106010100&collection_id=%ED%95%9C%EA%B5%AC\(%EA%B5%AC\)3378&lang=ko&seq=23#3](https://www.hangeul.go.kr/museumCollection/museumCollectionView.do?curr_menu_cd=0106010100&collection_id=%ED%95%9C%EA%B5%AC(%EA%B5%AC)3378&lang=ko&seq=23#3)

<구역인왕경 판독>9)

A: 初年月八日 方坐十地 入大寂室三昧思緣

B: 初[七ㄴㄱ] 年乙、月七 八日[十 方七 坐[ㄴㄴ下] 十地[十、入[ㄴㄴ] 七] 大寂室三昧[十、思[ㄴㄴ] 緣乙、

<재조본 유가사지론 판독>10)

A: 云何涅槃爲上首? 謂如來弟子依生圓滿轉時, 如先所說相而聽聞正法, 唯以涅槃而爲上首, 唯求涅槃, 唯緣涅槃而聽聞法

B: 云何[ㄴㄱ] 乙 涅槃爲上首[ㄴㄴ] 謂[ㄴㄱ] 如來[ㄴㄴ] 弟子[ㄴㄴ] 依[ㄴㄴ] 生圓滿乙、轉[ㄴㄴ] 時[ㄴㄴ] 如[ㄴㄴ] 先[ㄴㄴ] 所[ㄴㄴ] 說[ㄴㄴ] 相乙 而[ㄴㄴ] 聽聞[ㄴㄴ] 正法乙、唯[ㄴㄴ] 以[ㄴㄴ] 涅槃乙、而[ㄴㄴ] 爲[ㄴㄴ] 上首、唯[ㄴㄴ] 求[ㄴㄴ] 涅槃乙、唯[ㄴㄴ] 緣[ㄴㄴ] 涅槃乙 而[ㄴㄴ] 聽聞[ㄴㄴ] 法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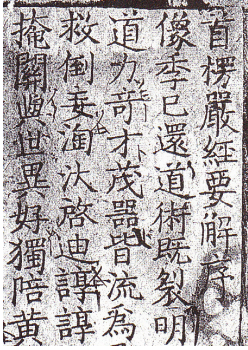
구결을 따라서 읽어내려가면 자연스럽게 順讀과 逆讀을 교차하면서 경문을 우리말 새김으로 읽어낼 수 있게 된다. 곧 이것이 한문을 한문 그대로 읽기 위한 도구로 제시된 것이 아니라, 우리말 새김에 맞추어 한문을 읽기 위한 도구로 제시된 것이다. 이런 석독 방식의 자토 구결은 이후 음독 방식의 자토 구결에 그 지위를 내주고 14세기 이후로 점토 구결과 함께 점차 사라졌다.

그런데 이 무렵에 표기된 것으로 여겨지는 음독 구결들은 이미 완성도 높은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실제로 중요 경전에 표기된 구결 중에 현재 전해지는 것들을 살펴보면, 초기에 제시된 구결이 이후로 몇 세기에 걸쳐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전승되었음을 발견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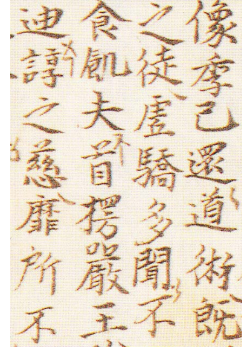
예컨대 고려 이후로 많이 읽혔던 『능엄경』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9) 황선엽, 「舊譯仁王經(上)의 역주에 대하여」, 『제46회 구결학회 전국학술대회 발표집』, 구결학회, 2013, pp.13-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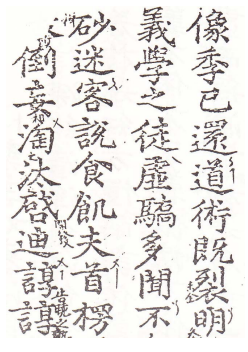
10) 장경준, 「瑜伽師地論 卷20 석독구결의 현대어역」, 『제46회 구결학회 전국학술대회 발표집』, 구결학회, 2013, p.2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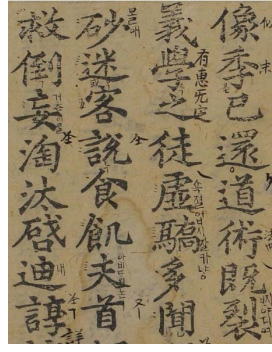
㉑ <박동섭 소장본 능엄경>¹¹⁾



㉒ <남권희 소장본 능엄경>¹²⁾



㉓ <송성문 소장본 능엄경>¹³⁾



㉔ <원각사 능엄경>¹⁴⁾

위에 제시한 4종의 『능엄경』 구결은 13세기 후반에서 15세기 후반에 이르는 사이에 작성된 것들이다. 두 세기에 걸쳐 서로 다른 지역에서 다른 시기에 작성되었으나, 구결 양상이 큰 차이가 없고 대체로 유사하다.

11) 박동섭 소장본은 13세기에 간행되어 늦어도 13세기 후반에 구결을 표기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12) 남권희 소장본은 13세기에 간행되어 13세기 말에 구결이 표기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13) 송성문 소장본은 1401년에 간행되어 15세기에 구결이 표기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14) 1461년에 간행한 『능엄경언해』의 저본으로 추정된다. 15세기 동국대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http://kabc.dongguk.edu/ImageVwer/NCBView?svfFolder=ABC_NC_1_KR_08_A002_00395_0001&ctype=NCB&page=1&title=%EC%88%98%EB%8A%A5%EC%97%84%EA%B2%BD%EC%9A%94%ED%95%B4#/page/5

이것이 다시 관각에서 여러 학자에 의해 『능엄경언해』에 반영되었는데, 이 역시 초기의 구결과 크게 다른 모습은 아니었다.

이는 초기에 제시된 구결이 이미 완성도를 갖춘 높은 수준에 올라 있었음을 보여준다. 한편으로는 불가에서 선배 고승이 작성한 경전 구결을 법을 전하듯이 전수하여 다시 후대에 전하는 구결 전승의 전통이 있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능엄경』 외에 다른 경전 구결의 경우도 대체로 초기 구결과 후기 구결에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초기에 제시된 구결이 나름으로 경건하게 후대에 전승되고 활용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다른 한 가지 예로 『서장』을 들 수 있다. 이 경우도 초기 구결이 이후 거의 그대로 후대에 전승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서장』 「答曾侍郎」의 한 부분을 예로 들면 아래와 같다.

- ㉠ 묘희암 본(1387): 開은 頃에 在長沙하야 得圓悟老師書호니 稱公호대 晩歲에사 相從호니
- ㉡ 안심선원 본(1576): 開이 頃在長沙하야 得圓悟老師書호니 稱公호대 晩歲에사 相從호니
- ㉢ 송광사 본(1608): 開이 頃在長沙하야 得圓悟老師書호니 稱公호대 晩歲에 相從호니
- ㉣ 명진 현토본(1874): 開이 頃在長沙하야 得圓悟老師書호니 稱公호대 晩歲에 相從호니
- ㉤ 언해본: 開 | 頃在長沙하야 得 | 圓悟老師書호니 稱公호대 晩歲相從이나
- ㉦ 탄허 현토본: 開 | 頃在長沙하야 得圓悟老師書호니 稱公호대 晩歲相從이나

위에서 보듯이 『서장』에 표기된 구결이 몇 세기의 시차에도 불구하고 거의 서로 일치하고 있다. 문장의 구성이 문법적으로 뚜렷해서 구결의 변화 가능성이 낮은 경우일 뿐이라고 반박한다면, 이는 그렇지 않다. 전승된 구결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면, 다양한 차이가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렇다면 이는 곧 초기에 제시된 구결이 권위를 획득하였고, 이것이 불가에서 꾸준히 전승되어 영향을 끼치고 활용되었음을 보여준다.

Ⅲ. 유가의 구결 기호 분화 시기에 관한 추론

구결을 사용하던 초기에는 사용자나 시기에 따라 선호하는 기호가 다르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쓰임새를 세세하게 구분하여 사용했기에 기호의 종류가 몹시 많았다. 지금까지 여러 연구자가 저마다 각종 경전에서 구결 기호를 추출하고 정리해서 소개했는데, 이것으로 기존에 사용하던 주요한 자토 구결 기호가 상당 부분 망라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여전히 변형된 다양한 사례가 곳곳에 존재하고 있다. 이를 모두 집대성하는 것은 아직은 어려울 듯하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점은 유가에서 즐겨 사용하던 구결과 불가에서 즐겨 사용하던 기호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적용한 구결의 원리가 서로 다른 것은 아니나, 사용하는 구결의 종류가 서로 다른 부분이 있다. 아마도 각자 축적한 독특한 학술 경험과 구결의 사용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어 구결 활용의 차이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차이가 발생한 계기를 하나하나 찾아내어 밝혀내는 것은 학술사를 구성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다. 다만 아직은 이를 특정하여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몇 가지 두드러진 차이를 견주어보고 그 차이를 유발한 요인을 추정해보고자 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고려 중기 이전에 여러 불가 경전에서 구결이 활용되었다. 아마도 이 시기에 유가 경전에도 같은 형태의 구결이 활용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를 확인할 당대 문헌이나 사용자 발언은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 이런 까닭에 구결 사용 주체의 인식과 구결 변천 과정을 추적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전해지는 몇 가지 문헌 기록을 통해 어렵게나마 유가 구결의 변천을 추측해볼 수 있을 뿐이다.

崔瀼(1287~1340)는 驪興君 閔頤(1270~1336)의 행장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나라 옛 풍속에 남자는 어릴 때 꼭 승려를 따라 句讀를 익혔다. -중략-
공은 10세에 절에 가서 배웠는데, 본성이 민첩하고 영특해서 글을 배우면 곧 그 뜻을 깨달았다.¹⁵⁾

예로부터 사찰이 보편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으로 기능했음을 보여 준다. 이때 어떤 교재를 사용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句讀를 떼는 것으로 기초 교육을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구두를 떼는 것에는 아마도 구결을 다는 것까지 포함하였으리라 짐작한다. 아직 유가와 불가가 대립하기 이전에 존재한 고려의 보편 교육이 사찰 공간에서 이루어졌고 이곳에서 구두를 익혔다고 한다면, 불가 경전에 사용하던 구결이 구두 학습에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1123년에 사신으로 고려에 와서 개성에 체류했던 徐兢(1091~1153)은 『선화봉사고려도경』에 이런 기록을 남겼다.

위로는 조정에 포진한 官吏들이 威儀를 익혀 辭采가 넉넉하고, 아래로는 閭閻陋巷에 經館과 書社가 두세 곳씩 늘어서 있다. 이곳에서 아직 결혼하지 않은 백성 자제들이 함께 머물면서 스승에게 경서를 배운다. 조금 장성한 뒤에는 각각 부류에 따라 벗을 택하여 寺觀에 가서 講習을 한다. 아래로 군졸과 어린 아이들까지도 鄉先生을 좇아서 배운다.¹⁵⁾

崔瀼가 말한 '옛 풍속'은 신라 화랑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인데, 徐兢의 기록으로 보면 적어도 12세기 초반 이후로는 사찰이 공공연하게 학생들의 학습 공간으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결혼하지 않은 자제들이 어릴 적에는 먼저 거주지 주변의 經館과 書社에서 경서를 익히는 것으로 시작하고, 나중에 저마다 벗들과 무리를 지어 사찰에 가서 강습을 계속했다고 한다. 유가와 불가가 서로 내외하지 않고 공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 사이 李奎報(1168~1241)는 남을 대신하여 작성한 「華嚴律章疏講習結社文」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했다.

15) 崔瀼 『拙叢千百』 卷2, 「故密直宰相閔公行狀」, “東方故俗, 男子幼年, 必從僧習句讀. -중략- 公十歲, 出就僧舍學, 性敏悟, 受書旋通其義.”

16) 徐兢 『宣和奉使高麗圖經』 卷40, 「同文·儒學」, “上而朝列官吏, 閑威儀而足辭采, 下而閭閻陋巷間, 經館書社三兩相望. 其民之子弟未昏者, 則群居而從師受經. 既稍長, 則擇友, 各以其類, 講習于寺觀. 下逮卒伍童穉, 亦從鄉先生學.”

佛氏의 뜻은 幽遠하고 미묘해서 곧장 깨달을 수 없다. 이 때문에 章, 疏, 鈔, 傳의 학술이 일어났으나, 그래도 文句가 詰屈해서 쉽게 이해하지 못한다. 반드시 師友가 함께 연마하고 여럿이 모여 강습한 뒤에야 道를 말할 수 있다.¹⁷⁾

불경 경문의 뜻이 심오해서 해득하기 쉽지 않아 이를 풀이한 章, 疏, 鈔, 傳 등이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난해해서 結社를 통해 함께 강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규보는 실제로 동지 50여 명을 모아 華嚴結社를 조직한 뒤에, “함께 약속하여 매년 겨울 여름에 安居하되, 평소 初夜에 經을 강론하고 中夜에 攝念坐禪을 하고 낮에 章疏를 강론하여 商酌耽味하는 것으로 常式을 삼는다.”¹⁸⁾라고 다짐한 바 있다.

이를 통해 13세기 전반의 문인 지식인들이 사찰 공간을 학문 연마의 장으로 활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곳에서 경전의 구두를 떼어 문구의 의미를 익히는 기초 학습을 비롯하여 경전의 심오한 이치를 탐구하고 강론하는 학술 활동까지 이루어진 것이다. 유가와 불가가 배타적 관계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경전을 학습하는 일에 있어서 상호 의존하고 아울러 학습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규보는 「卧誦楞嚴有作」¹⁹⁾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했다.

유가 경전 공부를 늙어서 그만두고 儒書老可罷
바꾸어 능엄경을 읽노라니 遷就首楞王
밤에 누워서도 읽 수 있을 정도라서 夜臥猶能誦
이불 속에 있어도 도량이 되네 衾中亦道場

유가의 서적을 공부하는 일을 놓아두고 『능엄경』을 공부한다는 것이다. 이는 학술상의 입장 전환에 따른 대처의 결과가 아니라, 그때그때의

17) 李奎報 『東國李相國後集』卷25, 「華嚴律章疏講習結社文 代人作」, “且佛氏之旨, 幽遠微妙, 不可直悟. 故於是, 有章疏鈔傳之學興焉. 然由文句詰屈, 不可易解, 則必須師友以相磨, 群集講習, 然後是可以言道矣.”

18) 李奎報 『東國李相國後集』卷12, 「水巖寺華嚴結社文」, “因共約每歲作冬夏安居, 於常時則初夜講經, 中夜攝念坐禪, 晝講章疏, 商酌耽味, 用爲常式.”

19) 李奎報 『東國李相國後集』卷5, 「卧誦楞嚴有作 二首」.

처지와 기호에 따라 오갈 수 있는 선택의 결과일 뿐이다. 이규보의 인식 속에서 두 가지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었다. 이런 분위기는 13세기 말을 거쳐 최해가 활동하던 14세기 전반까지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다.

이런 학술 환경 속에서는 유가 구결과 불가 구결의 분화 필요성이 제기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가 14세기 전반을 지나면서 굴절을 겪었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李齊賢(1287~1367)과 대립하던 辛旽(?~1371)이 공민왕에게 이렇게 아뢰는 적이 있다.

좌주와 문생으로 일컫는 儒者들이 조정 안팎에 포진하여 서로 청탁하면서 아무렇게나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예컨대 이제현의 문생들이 문하에 다시 문생을 두어 마침내 온 나라에 가득한 도적이 되었습니다. 儒者의 해악이 이러합니다.²⁰⁾

이제현과 그 문생들이 유학을 기반으로 새로운 세력을 형성하여 불교에 기반을 둔 기존 세력과 대립했음을 보여준다. 신유학을 수용하여 구축한 이제현의 학문 노선은 문생 李穡(1328~1396)을 거치고 다시 그 문생에 해당하는 정몽주, 이숭인, 권근, 정도전 등으로 이어져 강화되었다.

이제현과 같은 시기에 활동하던 李穀(1298~1351)도 1338년 10월에 남긴 글에서 “나는 석씨의 글을 읽어 본 적이 없어서 뭐라고 운운한 것인지 알지 못하겠다. 우선 儒者의 이야기로 말해보겠다.”²¹⁾라고 하여 확실하게 불가 경전을 배제하려는 의식이 있음이 엿보인다. 최해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불가 경전을 공부하지 않아 그 말을 모르겠다고 이야기한 데서, 유가와 불가의 경계가 분리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유가와 불가의 분리를 더욱 강화한 것은 權近(1352~1409)이었다. 許穆은 重刊된 권근의 문집에 붙인 서문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20) 『高麗史』卷110, 「李齊賢」, 「乃謂王曰 儒者稱座主門生, 布列中外, 互相干請, 恣其所欲, 如李齊賢門生, 門下見門生, 遂爲滿國之盜, 儒者之爲害如此。」

21) 李穀 『稼亭集』卷2, 「興王寺重修興教院落成會記」, 「余未嘗讀釋氏之書, 不知所謂云云者, 姑以儒言之。」

동방에서 浮屠를 尊信한 것이 신라부터 고려 말까지 천여 년인데, 공이 異端을 배척하고 禮敎를 숭상해서 先王의 道를 밝히고 一世의 정사를 안정시켰다. 그 공이 크다.²²⁾

권근은 經禮를 考定하고 『五經淺說』 등을 저술하여 六經의 깊은 뜻을 드러내어 밝힘으로써 조선의 이념 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뿐만이 아니라 불교를 배척한 공이 크다는 평가도 함께 뒤따랐다. 권근은 심지어 “내 생각에, 釋氏는 인륜을 버리고 임금과 부모를 떠났다.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을 저버린 자들로, 吾儒가 싫어하는 바이다.”²³⁾라고 말했을 정도다.

권근의 이런 주장 속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다. 불교와 대립하는 유학자로서 자기 정체성을 설정하고 이를 강하게 지키고자 했다는 것이다. 권근이 특히 유가 경전 연구에 더욱 힘을 다한 것은 이런 사유의 결과일 것이다. 그런데 권근이 유가 경전을 연구하면서 힘을 집중한 것이 바로 구결이었다.

우리나라에 이르러 陽村 權近과 梅軒 權遇(1363~1419) 형제가 경학에 밝고 문에도 능했다. 양촌은 사서오경의 口訣을 정하고 『천전록』과 『입학도설』 등을 저술해서 羽翼한 공이 적지 않다.²⁴⁾

성현(1439~1504)의 말이다. 경학에 밝고 문장에도 뛰어난 권근이 사서오경의 구결을 정하고 경학 저술을 남겼는데 이로써 조선 경학의 기틀을 마련하는 공을 세웠다고 지적하였다.

22) 許穆, 「陽村權文忠公遺文重刊序」, “本朝權文忠公又考定經禮, 作讀書分程, 入學圖說, 五經淺說, 闡明六經之奧, 我太祖, 太宗創業垂統, 專用經術, 以興文明之治, 公實有力焉. 東方尊信浮屠, 自新羅終麗之世千餘年, 能斥異端崇禮敎, 明先王之道, 定一世之治, 其功大矣.”

23) 權近, 『陽村集』卷12, 「水原萬義寺祝上華嚴法華會衆日記」, “子惟釋氏, 去人倫棄君親, 寓斯世而負斯世者, 吾儒之所訾也.”

24) 成俔, 『慵齋叢話』卷1, “至我朝陽村梅軒兄弟能明經學, 又能於文. 陽村定四書五經口訣, 又作淺見錄入學圖說等書, 羽翼之功不少.”

앞서 보았듯이 권근이 활동하던 때는 불가 경전의 구결이 이미 오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상당히 정밀해진 시기였다. 『능엄경』의 사례를 미루어 구결 전통이 이미 확고히 형성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바로 이런 시기에 권근이 수행한 구결 작업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성현의 지적은 설총 때 사용하기 시작한 유가의 경전 구결이 역사상 권근에 의해서 다시 한차례 크게 정리되었다고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경서의 口訣과 釋義는 중국에 없던 것이다. 薛聰(655 ~?)이 처음 시작하고 鄭圃隱과 權陽村이 완성했다. 세종 때에 여러 신하에게 나누어 맡겨서 口訣을 작성하게 했다. 그러나 오히려 제각기 책을 맡아 어수선하게 천착하고 말았다. 다시 선조 때에 관서를 설치하고 관원에게 명하여 서로 대조하고 취사해서 謄解를 확정하게 했다. 마침내 이것이 한 시대의 규범이 되었다.²⁵⁾

훗날 박세채(1631~1695)가 남긴 발언이다. 유가 경전의 구결 활용과 관련해서, 설총이 방언을 활용했다는 사실 다음으로 가장 먼저 권근의 역할을 꼽았다. 설총이 처음 제시한 유가 경전 구결을 권근이 완성하여 후세에 전하였다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世宗(재위 1418~1450)과 宣祖(재위 1567~1608)가 완성도를 더 높일 수 있었다고 한다. 유가의 경전 구결이 체계를 갖추어 새롭게 발전하는 데에 있어서, 고려 후기의 권근이 새로운 계기를 마련했다고 본 것이다.

이는 당시의 일반적 인식이다. 徐居正(1420~1488)은 崔恒(1409~1474)의 묘비명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光陵(세조)이 우리나라 학자의 語音이 바르지 않고 句讀가 정확하지 못함을 탄식하였다. 비록 권근과 정몽주의 口訣이 있기는 하지만 틀린 곳이 아직 많은 데 腐儒俗士가 오류를 되풀이하는 것이었다. 마침내 정인지, 신숙주, 구종직,

25) 朴世采, 『南溪集』 卷54, 『隨筆錄 丁未(1667)十二月十二日始錄』, “我國經書口訣釋義, 中朝所未有, 始發於薛聰, 成於鄭圃隱、權陽村. 至世宗朝, 分命諸臣著口訣, 而然猶人各有書, 紛紜穿鑿. 又至宣廟朝, 設局命官, 參互去取, 著定謄解, 遂爲一代之典, 可謂盛矣.”

김예몽, 한계희와 공(崔恒)과 신 서거정 등에게 오경과 사서를 나눠주면서 옛 것을 상고하고 요즘 것을 증명해서 口訣을 정해 올리라고 명하였다. 光陵은 또 여러 신하를 불러 모아 그 차이를 강론하고 직접 판단을 내리셨다.²⁶⁾

世祖가 재위(1455~1468) 시기에 당시 잘못 사용되고 있는 語音과 句讀를 바로잡기 위해 애썼음을 말하였다. 실제로 오경과 사서의 구결을 확정하기 위해서 세조가 여러 학자와 협업하여 토론을 반복한 사실이 實錄 곳곳에서 확인된다. 그런데 이때 權近(1352~1409)과 鄭夢周(1337~1392)가 제시한 경전 구결을 토대로 삼았다는 것이 눈에 띈다. 작업에 오류가 적지 않았다는 비판을 면하지는 못했으나, 두 사람의 구결이 당대의 권위를 얻고 함께 전해져서 유가 경전의 지침이 되었다고 말한 것이다.

권근의 구결 작업은 신유학 이념을 존중하고 불가의 종교 이념을 배척하던 신진 유학자의 학술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의미가 있다. 곧 불가와 유가가 대척하여 맞서고 있던 시기에 유가를 대표하는 신진 유학자로서 경전을 이해하는 관점을 구결로써 구현한 것이다. 불가와 대립하여 독자 기반을 구축해가는 역사적 투쟁 속에서, 유가 경전에 달아놓은 권근의 구결은 신진 유학자의 학술 지형을 지시해주는 좌표로 기능했다는 의미가 있다. 이 점에서는 鄭夢周(1337~1392)의 구결 작업도 함께 주목받았다.

이런 정황 근거를 토대로 정몽주, 특히 권근의 구결 작업이 유가 구결의 차별화가 이루어지는 출발점이 되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짐작해본다. 설령 이들에 의해 차별화가 현실로 나타나지는 않았더라도, 이들의 인식이 이후로 전해져 서서히 차별화 현상이 강화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다만 이를 실증할 근거가 아직은 부족하여 추정에 한계가 따른다.

26) 徐居正, 『四佳文集補遺』 권1, 「崔文靖公碑銘 并序」, “光陵嘗歎東方學者, 語音不正, 句讀不明. 雖有權近, 鄭夢周口訣, 紕繆尙多, 腐儒俗士, 傳訛承誤. 遂命臣鄭繼禧, 申叔舟, 丘從直, 金禮蒙, 韓繼禧及公與臣居正等, 分授五經四書, 考古證今, 定口訣以進. 光陵又召會諸臣, 講論同異, 親加審裁.”

IV. 맺음말

지금까지 불가에서 경전 연구에 구결을 활용하여 경문의 의미를 확정하고 이 구결을 후대에 전승함으로써 학술 전통의 계승을 이루어낸 현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울러 유가에 학술 기반을 둔 지식인들이 유가와 불가가 대립하는 시대 상황을 겪으면서 불가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조합의 구결을 활용하게 되었던 현상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이 구결의 분화에 차별화 전략이 내재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살피지는 못했으나 향후 연구가 필요한 몇 가지 지점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먼저 7세기 전후에 성립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초기 구결의 형태가 어떠한 것이었는지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당시에 불가 경전과 유가 경전이 학술 연구와 학습에서 핵심 텍스트가 되었는데, 두 가지 경전을 연구하고 학습하는 것을 돕는 도구로써 구결이 어떻게 기능하였고, 또 어떤 형태로 존재하였는지를 밝히는 것은 우리 학술사를 재구성하여 기술하는 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또 점토와 자토가 어떤 순서로 성립하였고, 어떤 관계 속에서 상호 영향을 끼치며 체계화되었는지를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점토와 자토는 그 외형이 전혀 다르지만, 기능만으로 보면 매우 흡사한 원리에 따라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 성립과 운용에서 서로 긴밀하게 연계되어 영향을 주고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연 사용자의 어떤 의지와 필요로 자토와 점토의 분리가 이루어졌는지, 또 어떻게 연계하여 사용했는지를 밝히는 것도 구결 역사를 밝히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된다.

또 점토가 언제까지 사용되었는지, 어떤 이유로 사라지게 되었는지를 밝히는 것과 이후 자토를 석독과 음독에 어떻게 적용하였는지, 또 어떻게 그 형태가 변천하였는지를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향후 학술사와 번역사의 측면에서 구결의 성립과 발전을 규명하는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參考 文獻〉

- 權近, 『陽村集』.
金富弼, 『三國史記』.
金宗瑞 等, 『高麗史』.
朴世采, 『南溪集』.
徐居正 『四佳文集補遺』.
徐兢, 『宣和奉使高麗圖經』.
成俔, 『慵齋叢話』.
李穀, 『稼亭集』.
李奎報, 『東國李相國後集』.
一然, 『三國遺事』.
崔漚, 『拙菴千百』.
許穆, 『記言』.
『再雕本瑜伽師地論』, 국립한글박물관(청구기호 한구(구)3378).
- 국립한글박물관, 『초조대장경 유가사지론 권66』, 국립한글박물관, 2018.
김홍석, 「麗末 鮮初 楞嚴經 順讀口訣의 文字體系 考察」, 『국문학논집』 19, 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03.
남권희, 「高麗末에서 朝鮮中期까지의 口訣資料에 관한 書誌學的 研究」,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한국도서관정보학회, 1998.
장경준, 「국립한글박물관 소장 『유가사지론』 권66의 點吐 개관」, 『초조대장경 유가사지론 권66』, 국립한글박물관, 2019.
장경준, 「瑜伽師地論 卷20 석독구결의 현대어역」, 『제46회 구결학회 전국학술대회 발표집』, 구결학회, 2013.
장경준, 「『瑜伽師地論』 點吐口訣의 몇 가지 특징」, 『구결연구』 38, 구결학회, 2017.
황선엽, 「舊譯仁王經(上)의 역주에 대하여」, 『제46회 구결학회 전국학술대회 발표집』, 구결학회, 2013.

Abstract

A Study on the Transmission of Buddhist Scholar' Gugyeol and Divide of Confucian Scholar' Gugyeol

Shin, Young-ju*

This study looked at the 借字表記 口訣 that our ancestors had used for the study and study of Chinese characters.

During the early Goryeo Dynasty, there was a 口訣 written with dots and lines using 角筆. There is also a 口訣 written with a brush by omitting the Chinese characters' dots and lines. We looked at how these two are related and when they were created. In addition, the function of 口訣 has been changed from interpreting to reading aloud. The cause was analyzed. For this, we looked at cases such as <初雕本 瑜伽師地論>, <舊譯 仁王經> and <再雕本 瑜伽師地論>. So far, 口訣 has been used to study 佛經. In addition, the results were passed back to future generations, allowing them to succeed the academic tradition. At this time, we looked at the role of 口訣. In addition, we examined the phenomenon in which intellectuals who learned 儒學 used a new combination of 口訣 rather than 口訣 of 佛經. Also, we investigated the possibility of differentiation strategies in this division.

【Key words】 The borrowed character(借字表記), Gugyeol(口訣), Gugyeol of Confucian scholar(儒家口訣), Gugyeol of Buddhist scholar(佛家口訣), The transmission of Gugyeol (口訣傳承)

투고일 : 5월 10일, 심사완료일 : 6월 13일, 게재확정일 : 6월 16일

* Professor, Sungshin University / syj@sungshin.ac.kr